

해외 사례로 본 창작인 지원 제도

창작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·상생 생태계를 조성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. 프랑스에서는 창작인들을 위해 사회보장제도를 실천하고 있고, 네덜란드에서는 예술인이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다. 세계 각국의 창작인 지원 제도를 살펴본다.



USA

NETHERLANDS
FRANCE
GERMANY

CHINA
JAPAN

미국 똑같이 일하는데 남녀차별이러니?

- **공정급여법** (2016~)
- 할리우드 스타들이 남녀배우 임금차별에 대해 발언하면서 이슈화
- 남녀간 임금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를 고용주가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 시행



프랑스 창작인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시초

- **앵테르미탕**(1969~)
- 일자리가 불규칙한 공연·영상예술 분야 비정규직 예술가들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주는 실업보험 제도
- 현재 프랑스 공연예술 분야 비정규직 종사자 가운데 절반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음



네덜란드 '창작'에 전념하도록 최저생활 보장

- **예술인최저생활보장제도**(WIK, 1998~)
- 미술가, 작가, 공연예술가를 대상으로 10년 동안 최대 4년간 일반 복지지원의 70%에 해당하는 보충소득을 지원
- 창작인들이 예술 활동에 전념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배려



독일 예술인도 근로자처럼 사회보장제도 혜택

- **예술가사회보험**(KSV, 1983~)
- 창작인의 직업적인 불안정성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고자 만든 예술가 사회보험 제도
- 음악가, 미술가, 영화감독 등 창작인들이 의료보험 및 국가 연금 혜택을 받고 있음



중국 창작인 권리 보호! 저작권 기술 개발

- **DCI**(Digital Contents Identifier, 2012~)
- 중국의 저작권 보호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연구개발한 기술
- 블로그, 사진, 음악, 영상 등 콘텐츠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과 추적 및 구제 등의 기능이 있음



일본 방송콘텐츠 공정거래를 위한 가이드라인 운영

- **방송콘텐츠 제작·거래의 적정화와 촉진에 관한 검토회**(2009~)
- 일본 총무성은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사이의 불공정거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단체를 통해 건전한 거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공표
- 이에 따라 각 방송사는 외주제작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운영

